

# 승풍은 물결

통권 285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6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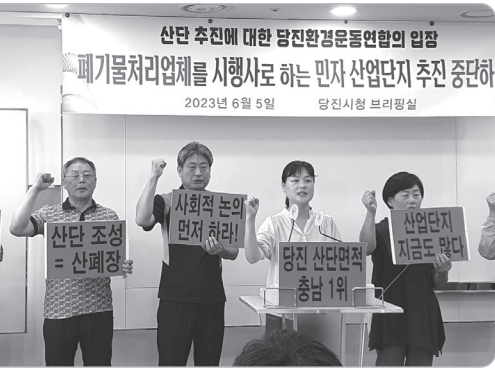


##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지난 5월 20일 석문방조제에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 활동 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CONTENTS



폐기물처리업체 시행사로 한 민자 산단 조성 중단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국민연금 냈을 뿐인데 석탄 투자자됐다... 중단하라!”

- ▶ 발행일 2023. 6.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그 강에 가고 싶다 / 김용택
- 4 **지역환경초점1**  
| 폐기물처리업체 시행사로 한 민자 산단 조성 중단하라
- 6 **지역환경초점2**  
| 합덕·순성에 100만 평 산단 조성한다
- 7 **지역환경초점3**  
| 당진 LNG 터미널 건설 추진
- 8 **지역환경초점4**  
| 당진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호·정화 활동 펼쳐
- 9 **지역환경초점5**  
| 당진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10 **지역환경초점6**  
| 인공 호수공원 어떻게 볼 것인가?
- 11 **지역환경단신1**  
| “국민연금 냈을 뿐인데 석탄 투자자됐다... 중단하라”
- 12 **지역환경단신2**  
| 4대강 보 철거 투쟁 돌입...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 14 **지역환경단신3**  
| 충남 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의 절반 넘어
- 15 **전국환경초점1**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 16 **전국환경초점2**  
| 국민 85% '일 오염수 방류 반대', 72%는 '수산물 덜 먹을 것'
- 18 **전국환경초점3**  
|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19 **5월 살림살이**
- 20 **5월 활동소식**
- 22 **6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그 강에 가고 싶다

김용택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이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애가 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옷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들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는 그저 물을 볼일이요  
 가만가만 다가가서 물 깊이 산을 볼일이다  
 무엇이 바쁜가  
 이만큼 살아서 마주할 산이 거기 늘 앉아 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른다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머리맡에 와 앉아 쉬었다가 가고  
 강물은 때로 나를 따라와 머물다가  
 저 혼자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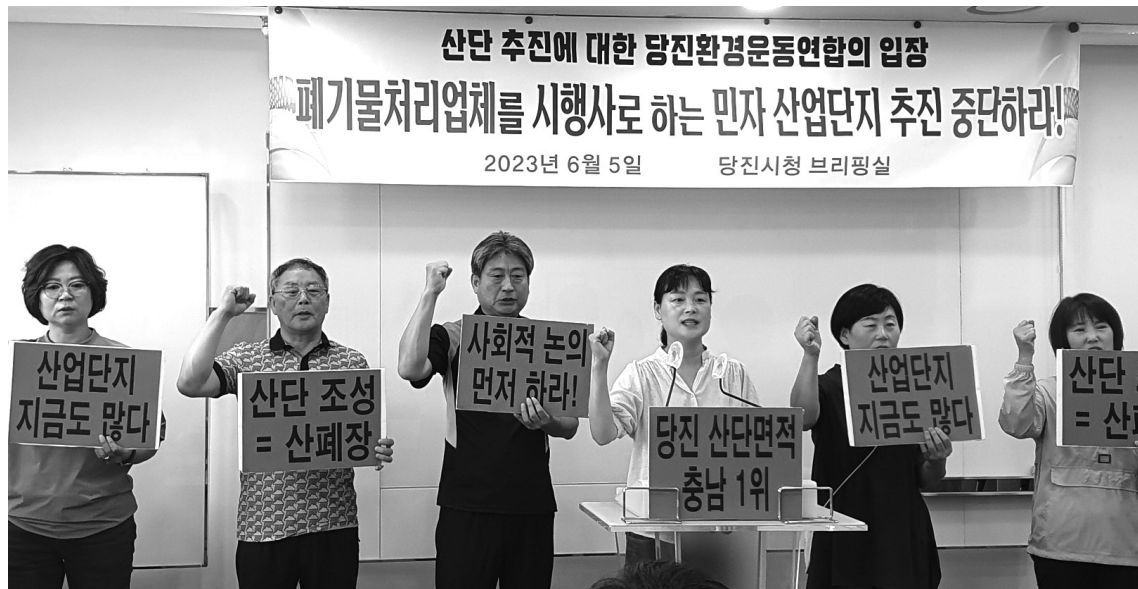
작가소개 **김용택**

시 <섬진강>연작으로 유명하여 일명 '섬진강 시인'으로 불린다. 1969년 순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2008년 8월까지 교직에 있었다. 교직 기간에 자신의 모교인 임실 윤암초등학교 미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1982년 <창작과 비평 21 신인작가상>까지 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 외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 폐기물처리업체 시행사로 한 민자 산단 조성 중단하라

## 당진환경운동연합,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월 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시행사로 하는 당진시의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월 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시행사로 하는 당진시의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축법'에 의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하 '산폐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폐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면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에 나서고 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SK에코플랜트도 SK건

설이 2021년 사명을 변경하고 폐기물처리 전문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며 폐기물처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산폐장 운영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은 폐기물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 산단 추진시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산단 추진시 승인 받은 계획과 달리 폐기물 매립용량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산업단지를 통째로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을 시도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폐장 의무설치 산업단지 현황에 의하면 전국

64개 산업단지 중 산업폐기물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을 넘어서는 곳은 13%인 8개에 불과하다. 산폐장 추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산폐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산단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 산단 내 산폐장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인허가가 쉽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이미 충남에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등 3곳에서 산단과 함께 산폐장 조성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산단을 통째로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을 시도하는 사천시 대진일 반산단도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이다.

폐기물처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시행자로 민자 산단을 추진할 경우 산폐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SK에코플랜트를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 산단 조성을 중단하여야 한다.

당진은 2022년 시군구별 산단 조성 면적이 충남 1위, 전국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의 산단 조성 면적은 33,358천㎡로 충남 전체 산단 면적 118,129천㎡의 28.2%를 차지하며 천안, 아산, 서산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2020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당진시가 11,733,515백만원으로 아산시 29,923,576백만원, 천안시 26,111,315백만원, 서산시 15,843,904백만원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단 확대가 지역

내총생산(GRDP)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진시는 굴뚝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산업폐기물 배출량 전국 3위, 산업폐수 배출량 전국 12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전국 1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충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산업폐기물 등 환경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산업단지를 늘려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입주해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단 추가 조성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단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에 달려있다. 당진의 산업이 석탄 화력, 철강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단 신규 조성, 무차별적인 기업유치 보다 탄소 다배출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글 : 사무국]

## 합덕·순성에 100만 평 산단 조성한다

SK에코플랜트 1조 투입...사업시행자로 선정  
북부권에 50만 평 산단 추가 조성 추진도  
당진시“민선8기 들어 3조 규모 투자유치”

SK에코플랜트가 합덕·순성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진행된 당진시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2016년 6월말 준공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지역 전체 산단 분양률은 90%를 넘긴 상황이다. 기업을 유치해도 산업단지가 없어 더 이상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다다르면서 오성환 당진시장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우량 민간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제1442호 '산업단지 포화상태...신규 산단 지정 추진' 기사 참조>

당진시는 지난 15일 오성환 시장이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박경일 대표를 만나 설득 끝에 (가칭) 합덕·순성 그린 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조 원으로 규모는 100만 평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산업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6월 초 충청도와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정 승인, 토지보상 절차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027년까지 북부권에도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민선8기에 접어들지 10개월 만에 3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오성환 당진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가 시작된 가운데, 5월 현재까지 16개사에 총 3조 1684억 원을 유치했으며, 278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진시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가 둔화될 수 있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검토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규모 필지가 필요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관련 업종이 편중됨에 따라 유치기업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시대]

## 당진 LNG터미널 건설 추진

송악읍 고대부두 일원에 7600억원 규모 LNG터미널 건설사업 추진  
항만시설 1선좌, 27만㎥급 탱크 2기, 200톤/h 기화기 2기

당진 송악읍 (중략) 한진리에 유희화된 고대부두(10번)에 조성될 예정인 당진 LNG터미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합작 투자한 법인 당진탱크터미널(주)을 통해 건설된다.

현재, 당진탱크터미널(주)는 LX인터내셔널의 회사 중 하나로, 고대부두 10번의 토지주로 등록돼 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터미널 건설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는 대신 LX인터내셔널과 합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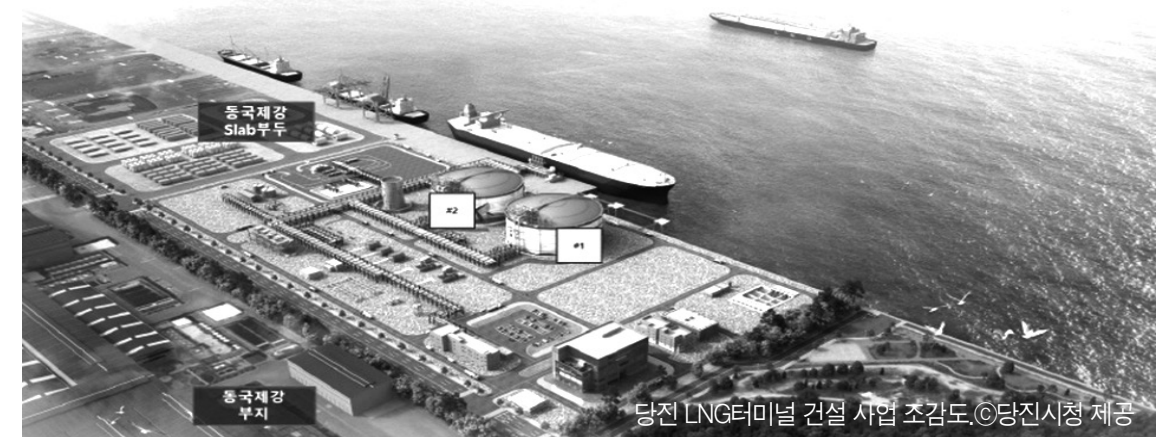
당진 LNG터미널 부지 조성 규모는 6만평이며, 총투자비는 1조원, 이 가운데 터미널 건설 비용에만 7600억원 투입될 전망이다. 항만시설은 21만㎡급 선박 접안부두 1선좌이고, 설비로는 △27만㎥급 탱크 2기 △200톤/h 기화기 2기 △LPG 증열 설비 등이 계획돼 있다.

당진 LNG터미널은 해외에서 수입한 LNG가스를 저장하고, 이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공급망은 KOGAS 배관을 통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며, 그리고 직배관으로는 인근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터미널 착공 및 준공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당초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착공하고, 2027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승인과 산자부 인허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준공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중략)

한편, 오는 31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당진탱크터미널(주)는 당진 LNG터미널 사업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 당진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호·정화 활동 펼쳐

오는 6월, 9월, 10월 지속 캠페인 예정



▲지난 5월 20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해변정화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5월 20일 석문방조제에서 해변정화 활동 전 단체사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해변정화 활동을 펼쳤다.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란 슬로건 아래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해변정화 활동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자원한 봉사자들과 함께 당진문의의전당에서 버스로 출발한 이들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를 수거했는데, 더운 날씨에도 약 3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결국 인간에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돌아온다”라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어구가 큰 문제로, 정부는 친환경 생분해 어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해양 쓰레기들은 곧 사람의 몸에 돌아온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과 9월, 10월에도 해변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출처: 당진신문]

# 당진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규탄하고 정부와 충남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일본에서 7월쯤이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적극 나서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며 “바다에 투기될 방사성물질은 아무리 희석돼 배출하더라도 바다 생물에 의해 농축돼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는 해양 투기가 아니라 오염수 저장탱크를 확보해 충분한 반감기를 거칠 때까지 저장하고 인간의 접촉이 없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5월 8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주 월요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당진신문]



# 인공 호수공원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 ◇ 인공 호수공원 추진 방식

호수공원 공청회는 세 곳의 후보지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후보지를 발표한 순간 '우리집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을 만들자'가 되어 공청회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

당진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다. 후보지 발표에 앞서 당진시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 호수공원 조성 및 사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설명하고 시민들이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 호수공원을 만들 것인지 판단하도록 했어야 한다.

## ◇ 인공 호수공원 필요한가?

시내권과 가까운 당진천과 역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진시 전체로 보면 삼교호, 석문호, 대호호 세 곳의 규모 있는 담수호가 있다. 접근성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꼭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호수가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시내권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는 조성 및 사후 유지관리 비용,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 인공 호수공원 수량 확보 및 수질 유지는?

당진을 포함해 충남 서해안지역은 대표적인 물 부족 지역이다. 당진천은 유역면적이 적어 하천 유지수량이 부족해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퍼올려 하천 유지수로 내려보내고 있다.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하면 유지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금강 옆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이나 한강 옆의 일산호수공원과 달리 당진은 하수처리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하수처리수를 사용한 호수공원은 수

질 문제로 모두 실패해 지하수 활용 등 대안을 찾고 있다.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수를 유지수로 사용할 경우 호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 ◇ 인공 호수공원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당진시가 발표한 세 후보지 중에서 한 곳으로 선택하면 개발 이익은 호수공원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결과가 특정 몇몇의 이익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수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거나 혹은 공공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조성해야 한다.

## ◇ 인공 호수공원 성급히 추진하면 안된다.

당진에는 3곳의 큰 담수호가 충분히 있고 시내권과 멀지 않다.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석문호의 수질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석문호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되살리고 갯벌을 복원하는 동시에 석문호에 연결된 당진천을 따라 친수 공간,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당진시가지와 가까운 곳에 인공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방법을 한정하면 도출될 결과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호수 유지수량 확보, 수질 관리 방법, 개발 이익 환수,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려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글: 사무국]

# “국민연금 냈을 뿐인데 석탄 투자자됐다 … 중단하라”

충남환경운동연합 24일 기자회견 "제한 기준 확정해서 시행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4일 국민연금 충남 흥성지사 앞에서 “국민연금을 냈을 뿐인데 석탄 투자자가 됐다”며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투자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4일 국민연금 충남 흥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을 냈을 뿐인데 석탄 투자자가 됐다”며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투자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중략)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도 2021년 5월 28일 탈석탄 선언을 했다”며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석탄)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략)

이들은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면서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석탄 선언 시점(2021년)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와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은 즉각 탈석탄 선언을 실현할 구체적 석탄투자 제한 기준을 하루속히 확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들은 상장에 ‘위 기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금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해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무려 2년간 정책 이행을 연기하는데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고 적은 후 국민연금에 연기대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탈석탄 선언 정책 실행을 ‘연기한 것을 ‘연기대상’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4대강 보 철거 투쟁 돌입 ...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25일 환경부 앞에서 38개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환경부장관 퇴진 촉구  
“장벽을 걷어내고 맘껏 굽이쳐~!”



5월 25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38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사대강 보 철거'를 위한 기구를 발족했다.

한글 서예가 바우솔 김진호 씨는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도로 위에 펼쳐놓은 현수막 천에 힘찬 필치로 붓글씨를 썼다.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인 임도훈 씨는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열창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세종보, 죽산보 등 5개 보의 이름이 적힌 종이박스 장벽을 해머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초여름 햇살은 따가웠지만, 이날 50여명의 금강·영산강 유역 시민들은 환경부 앞 도로에서 다 함께 "한화진 장관 퇴진"을 외쳤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38개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 철거'를 위한 정식 기구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가뭄에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환경부가 과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

했던 보 해체 결정을 사실상 폐기처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38개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 철거'를 위한 정식 기구를 발족했다.

이날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금강과 영산강 보철거 이행계획이 나왔음에도 한밤중에 도둑놈처럼 이행계획을 공개하는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4대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밥줄이나 유지하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가 4대강을 윤석열 정권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장관이 '4대강 물그릇' 이야기를 했는데, 물그릇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오염됐다면 식수는 물론 농공용수로도 쓸 수 없다”면서 “강은 물그릇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인 흐르는 물이기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바다와 만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2019년 설문조사에서 4대강 보는 상시 개방하고 시범적으로 금강·영산강의 5개 보는 해체하거나 탄력운영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81%가 찬성했다”면서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구구절절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달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장난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비판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돌렸고, 환경단체들은 “질문 설계상 4대강 보의 활용을 전제로 실시된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라고 성토했었다.

이어 최낙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대운하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여론을 조작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영산강 가뭄에 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은 물이 아니라 생활용수였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강물을 죽이는 보가 아니라 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38개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 철거'를 위한 정식 기구를 발족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도 승촌보 4.5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산보도 1.5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고, 가뭄이어서 그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물을 언제 이용했나요? 승촌보에 미나리 농사짓는다고,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흘려 보내서 그 물의 온도를 이용한 것 뿐입니다(수막재배). 그럼 그 물을 가뭄이어서 어디가 쓴다는 말입니까.”

이날 시민행동은 이정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경부는 스스로 내놓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 분석 결과는 물론, 4대강 관련 감사원의 네 차례 감사 결과들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정책과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면서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우리 금강·영산강 38개 시민·환경·종교·민중 단체들은 보 개방 이후 강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성 회복과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과, 연속성 있는 자연성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몰염치와 안면몰수에 맞서 보 철거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

## 충남 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의 절반 넘어

충남환경운동연합 지난해 분석 결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50.3%

지난해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굴뚝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석탄화력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2022년 호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 소재 석탄화력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7,420만 톤으로 전국 석탄화력 배출량의 53.6%를 차지했으며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전국 대비 50.3%인 1만 8989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입지해 있다.

태안화력은 온실가스 2373만 톤, 대기오염물질 8181톤을 배출해 전국 석탄화력 중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석탄화력 중 설비용량이 가장 큰 태안화력은 지난해 발전설비 가동률 감소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소 줄었으나 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에선 전국 평균 1GWh당 216.20kg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태안화력 6호기에서 545.85kg, 태안화력 5호기에서 511.87kg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화력은 온실가스 2335만 톤을 배출해 태안화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6156톤으로 3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환경설비개

선을 위한 1호기와 4호기 가동 중단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보령화력은 대기오염물질 2747톤을 배출해 6위를, 온실가스는 1207만 톤을 배출해 5위를 차지했다. 보령화력 4호기가 성능 개선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보령화력 5, 6호기는 다른 호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이 높았다. 5호기는 423.89kg을, 6호기는 338.93kg을 배출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충남도내 석탄화력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것이어서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의 감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설계수명이 도래한 보령화력 5호기와 6호기의 수명을 1년 연장함으로써 노후화된 환경설비로 인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밖에 없게 됐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도 그만큼 더 큰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며 “주민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을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53기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5기의 석탄화력 민자 발전소들은 온실가스 등의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처 : 금강일보]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지난 5월 20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본 집회를 마친 뒤 청계광장-종각-을지로-시청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약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연대 발언을 위해 이날 아침 제주에서 상경한 ‘정근호’ 제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며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중략)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공동선언문 낭독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피담 치부하며 오

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의 열기가 뜨거웠던 탓일까? 본 집회 예상 마무리 시간을 넘겨 행진(청계광장-종각-을지로-시청)을 시작했다. 행진 초반, 행진에 함께하는 정치인을 촬영하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뒤섞여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다.

행진이 을지로 입구에 들어서자 사전에 준비한 ‘다이인’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드럼통을 부으면, 오염수를 상징하는 검은 천이 행진 대열 가운데를 가로질러 참가자들이 양편으로 쓰러지는 것을 형상화했다. 오염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한다는 경고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 (이하 생략)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일부 발췌]



# 국민 85% '일 오염수 방류 반대', 72%는 '수산물 덜 먹을 것'

환경운동연합, 1천명 설문조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72.3%에 달하는 등 어민 등 수산업계 피해가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73%가 '매우 반대'라고 했고, 12.4%가 '대체로 반대'라고 응답했다.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85.4%에 이르렀다. '대체로 찬성'과 '매우 찬성'은 각각 6.4%, 4.3%였다. 모름 또는 기타는 3.9%였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대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130만 톤을 줄여들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수준으로 정화해 방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선 조사 대상 가운데 79%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20.9%), 20대(27.3%), 보수(24.4%)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선 78.3%가 '지상 처분 시설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고 꼽았다. '해양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였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멀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인됐다. '해양방류가 시작될 경우 귀하의 수산물 소비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냐'는 질문에 72.3%가 매우 또는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또는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0.6%였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정책을 묻자 응답자 가운데 61.6%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수준의 수입금지 조치 유지'는 23.4%였고, '수입금지 조치 축소·완화'는 8.6%였다. 모름 또는 기타는 6.4%였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4.3%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국민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며 "다음 달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아 오염수 해양 투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어민들과 서울에서 집회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

전문가와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방류가 아닌 지상에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 (%)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이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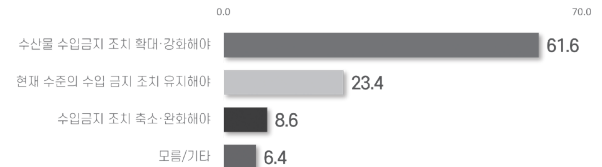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경우 귀하의 수산물 소비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시 수산물 정책 방향 (%)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데,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관련 정부 대응 평가 (%)

귀하께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평]

#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5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9,706,797	인건비	급여	5,750,000
회비	개인회비	5,985,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513,050
계		6,055,000	계	6,678,3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548,080	경상비	복지후생비	30,000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98,700
계		548,080		소모품비	385,0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488,980
	계	-		기타운영비	27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1,274,58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83,000
보조금	기타사업	9,000,000		생태보전사업	1,720,050
	계	9,000,000		생활환경사업	440,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807,15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		연대사업	362,103
	계	-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3,512,30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33,844,664
				계	33,844,664
월수입 총계		15,603,080	월지출 총계		11,465,213
수입 합계		45,309,877	지출 합계		45,309,877





### 5월 운영위원회 개최

5월 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5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회의

5월 23일 당진시청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

5월 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구터미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용연리 마을주민 환경교육

5월 26일 당진시 용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개최

5월 19일 서천 흥원마을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5월 31일 당진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소식지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6/01 환경운동연합 정의로운 전환 과제 간담회 - 사무실
- ❖ 6/02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 당진지속협
- ❖ 6/05 당진시 민자 산단 조성 추진 대응 기자회견 - 시청 브리핑실  
환경의 날 및 환경교육주간 기념식 - 천안시청
- ❖ 6/07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준비 사전 답사 - 보령시  
인권조례 폐지 시도 혐오차별 대응 당진시민사회 토론회 - 당진시청
- ❖ 6/08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담회 - 내포 /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 ❖ 6/10 환경의날 기념 당진환경교육한마당 - 당진시청 잔디밭
- ❖ 6/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6/13 6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및 생협 출자자모임 - 예주생협 당진점
- ❖ 6/15 충남도지사 당진시민과의 대화 - 당진시청 대강당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회의 -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 ❖ 6/16 충남연대회의 공동대표 회의 및 연결과 격려의 밤 - 아산 민들레밥상
- ❖ 6/17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공연 - 돈치킨
- ❖ 6/19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6/23 환경운동연합 조직 관련 활동가 토론 - 대전NGO센터
- ❖ 6/24 해변환경정화활동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2회차 - 대호방조제
- ❖ 6/26 산단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토론회 - 국회
- ❖ 6/27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상반기 신입 회원 만남의 날 - 사무실
- ❖ 6/28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7차 공론장 - 온라인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6/27(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종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경환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곤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수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탈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은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중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철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중대 박중화 박창순 박춘희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용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에 손창원  
 손화용 송노섭 송병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걸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덕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정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종호 이종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해은 이해은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외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6월 7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날짜 | 2023년 6월 24일(토) 오전 9시

| 장소 | 대호방조제

| 행사일정 |

- 당진 문예의전당 주차장(9시출발, 12시 도착).
- 봉사시간은 2시간 40분 적용됩니다.
-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정감다라.....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함께 하는 초여름 밤

# 난리부르스 콘서트

2023년 6월 17일(토) 늦은 6시 30분 돈치킨(무수동2길 47-3)

## 난리부르스

Vocal 김광수  
Drum 조희두  
Bass 최재혁  
Keyboard 이경희  
Guitar 박은정

## 빅쇼

Vocal 섭섭  
Drum 깡깡  
Bass 찌찌  
Keyboard 반반  
Guitar 섭섭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